

# 이인석상등병의 전사와 ‘죽음의 정치성’

정 안 기 \*

(e-mail: [joungak@naver.com](mailto:joungak@naver.com))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2. 영웅적 전사와 정황의 의문  |
| 2. 이인석의 성장과 육군특별지원병 지원   | 3.3. 특별한 죽음과 이상한 추모열 |
| 2.1. 가계와 생활              | 4. 이인석상등병과 죽음의 정치성   |
| 2.2. 옥천농업실수학교와 마쓰오(増尾)교장 | 4.1. 식민권력의 서훈·현창     |
| 2.3. 육군특별지원병 지원과 동기      | 4.2. 조선인 사회와 영웅적 서사화 |
| 3. 천황폐하 만세! 이상한 추모열      | 4.3. 이인석상등병과 죽음의 정치성 |
| 3.1. 육군병지원자훈련소의 교육과 훈육   | 5. 맺음말               |

キーワード: 陸軍特別志願兵(The army special volunteer system), 李仁錫上等兵(Corporal Lee Inseok), 天皇陛下万歳(Hurrah for His Majesty the Emperor), 植民權力(Colonial authorities), 朝鮮人政治勢力(Colonial authorities), 皇国魂(Imperial Japanese spirit), 死の政治性(the Politics of Death)

## 1. 머리말

1939년 6월 육군특별지원병 이인석상등병은 조선군 제20사단 제79연대 소속으로 중일전쟁에 참전해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전사한 조선인 최초의 황군 병사로 알려져 왔다. 장렬무비의 명예전사로도 알려진 이인석상등병은 3차례의 고별식, 금치훈장 수상,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 합사 등 파격적인 서훈·현창과 함께 조선인 호국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joungak@naver.com)

\*\* 2016년 10월 14일 故이인석상등병의 묘역과 유가족 방문 조사 과정에서 여러 도움을 주신 충북 옥천군 옥천신문사 이안재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영령으로 추모되었다. 이인석상등병의 전사는 조선인 사회의 이상한 추모열을 자극했고, 문예매체의 연출·각색을 거치면서 반도인의 충혼, 진중의 꽃, 흥아의 초석 등 조선인의 황국혼을 표상하는 군국 영웅으로 서사화되었다. 1939년 이래 이인석상등병의 죽음에 대한 이상한 추모열은 식민권력이 민족혼을 탈색하고 황국혼으로 충만한 조선인의 모범으로 황민화정책의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활용하고자 했던 반면, 조선인 정치세력은 조선인 최초의 혈세 납세자임을 내세워 징병제와 참정권 획득을 위한 정치적 바게닝의 호재로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인석상등병의 전사는 서로 다른 목적 함수를 욕망하는 식민권력과 조선인 정치세력이 공모한 ‘정치적 죽음’이었다.

현재, 이인석상등병의 전사를 둘러싼 본격적인 학술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1987년 일본 학계의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는 이인석상등병의 죽음을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고 전사한 최초의 조선인 병사로 간주해서 식민지를 포함한 풀뿌리 파시즘의 주요 논거로 활용하였다.<sup>1)</sup> 또한, 2011년 역사문제연구소는 이인석상등병의 전사를 일제가 또 다른 조선인 청년들을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소비된 죽음’으로 파악하였다.<sup>2)</sup> 1997년 8월 MBC는 이인석상등병의 죽음이 일제의 철저한 기만과 날조에 불과했음을 고발하는 “8.15 특집 반도의 영예 이인석”<sup>3)</sup>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방영하였다. 2003년 9월 옥천신문은 미망인과 유가족을 취재해서 이인석상등병의 미화된 죽음의 실상과 유가족의 굴곡진 가족사를 조명하였다.<sup>4)</sup> 또한, 내선일체화 정책의 일환으로 육군특별지원병제에 주목한 최유리는 모집 정원 1만 6,830명에 대해서 80만 2,047명(혹은 80만 2,147명)에 달하는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자를 광범위하고 철저한 강제적 동원의 결과로 파악하였다.<sup>5)</sup>

이인석상등병의 전사를 둘러싼 종래의 논의는 일제의 침략성과 강제성 그리고 조선인의 가혹한 희생만을 강조하는데 그쳤고, 본격적인 학술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인석상등병 전사에 대한 각계각층으로부터 답지한 산더미를 방불케 하는 조의문, 다액의 조의금, 조선인 사회의 감성을 자극하는 조선인 문화엘리트의 문예협력, 조선인 사회의 이상한 추모열을 고려하면, 과연 이인석상등병의 전사는 단지 일제의 침략전쟁과 정치적 목적에만 봉사하는 ‘소비된 죽음’에 불과했는지 혹은 요시

1) 吉見義明(1987) 『草の根のファシズム』東京大学出版会, p.135.

2) 강중훈 외(2011) 「위대한 황국 청년의 죽음: 지원병 최초의 전사자 이인석 상등병」 『미래를 여는) 한국 역사(5)』역사문제연구소.

3) MBC문화방송(1997.8.14) 「반도의 영예 이인석」 8.15특집 다큐멘터리.

4) 『옥천신문』 2003.9.27. (<http://www.okinews.com>).

5) 최유리(1997)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국학자료원.

미의 주장과 같이 이인석상등병이 과연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고 전사했는지 또는 최유리의 주장과 같이 이인석의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을 광범위하고 철저한 강제동원의 결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sup>6)</sup>

이 연구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당혹스러운 딜레마이자 미스터리’로 간주되는 육군 특별지원병제를 식민권력과 피식민 사회와의 정치적 의존관계와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역사적 프리즘(historical prism)으로 간주해서 이인석상등병의 죽음을 식민지 정치사 문맥에서 재구성·재해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시대와 사회로부터의 피구속성, 구조와 현상의 강제성을 구별하는 복안적 시점 그리고 그 분석의 단위를 분별력 있는 이기심을 본성으로 하는 개인으로 설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인석의 이력과 성장 그리고 육군특별지원병 지원 실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1938년 육군병지원자훈련소의 입소와 훈육, 1939년 중일전쟁 참전과 전사 상황 그리고 조선인 사회의 이상한 추모열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이인석상등병을 추모하는 식민권력의 파격적인 서훈·현창과 조선인 문화엘리트의 문예협력 그리고 이인석상등병의 전사와 죽음의 정치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이 연구는 식민지 군사동원과 식민지 정치사 연구의 실증적 보완과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6)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는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했던 4,776명에 달하는 한국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지도급 인사 대부분을 망라하는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인명사전에서는 이인석의 이름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친일 인사의 선별 기준과 관련해서 1940년대 비행기를 헌납했던 박홍식과 같은 자본가적 친일, 인촌 김성수와 같은 학도병 지원을 촉구하는 정치적 친일, 피의 진중보국으로 회자되는 이인석의 군사적 친일은 과연 친일의 과소 칭량과 정도 구별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들 조선인을 의미불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단정하고 他者化하기에 앞서 이들이 추구했던 친일의 논리, 목표, 과정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불가결하다고 할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편(2009) 『친일인명사전』.

[사진] 이인석상등병의 근영



(자료)이인석상등병의 근영은 1939년 매일신보 옥천지국이 부인 유서분 여사에게 기증한 것이다.

[표] 이인석상등병의 이력

년월	이력
1915.12.	출생(충남 옥천)
1925.4	군서공립보통학교 입학
1931.3	군서공립보통학교 졸업
1933.5	유서분(18세)과 결혼
1935.4	옥천공립농업실습학교 입학
1937.3	옥천공립농업실습학교 졸업과 조수 취임
1938.3	장녀 이정숙 출생
1938.5	옥천공립농업실습학교 조수 사퇴
1938.5	충북도지사의 육군특별지원병훈련소 적격자 선발 발표
1938.6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제1기생 입소
1938.12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수료(우수상)
1938.12	제20사단 보병 제79연대 입영

1939.5	제79연대 교체 요원으로 중국 산서성 출정
1939.6	산서성 문희현 요장 부근 무명사 고지전투 전사
1939.7	이인석일등병의 전사 소식 통보(入電)
1939.7	충북도지사 이인석일등병 전사 소식 접수 및 부고
1939.7	일간지 이인석일등병 전사 소식 게재
1939.7	조선군사령부 이인석일등병을 상등병 특진 결정
1939.9	제20사단 합동고별식 거행
1939.1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합동고별식 거행
1939.10	충북 옥천군 이인석상등병 군민장 거행
1940.2	일본 내각상훈국 이인석상등병 금치훈장 수여 발표
1940.7	조선총독부 이인석상등병 금치훈장 수여식 거행
1941.9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 임시제대위원부 이인석상등병의 합사 결정
1941.9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이인석상등병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 합사기념 위령제
1941.1	이인석상등병 유가족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 참배

(자료) 필자 작성.

## 2. 이인석의 성장과 육군특별지원병 지원

먼저, 이인석의 가계와 생활, 성장과 진학 과정을 검토한다. 이어서 1938년 6월 육군특별지원병의 지원 경위와 육군병지원병훈련소 입소 그리고 훈육 실태를 검토해보자.

### 2.1. 가계와 생활

이인석은 [표]와 같이 1915년 12월 4일 충북 옥천군 군서면 하동리 86번지(일명 새터) 부친 이천전(53세)과 모친 서일순(55세) 사이에서 3남 3녀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sup>7)</sup> 1939년 당시 이인석의 남동생은 이의석(18세), 이종두(15세), 이종우(7세) 3명이었고, 여동생 이종여(12세)와 그 외 다른 2명이었다.<sup>8)</sup> 1933년 이인석은 인근 마을의 유서분(당시 18세)과 혼인해서 1938년 3월 장녀 이정숙(2세)을 출산하였다. 1939년 당시 이인석의 고향은 옥천군 소재지였던 옥천읍으로부터 약 6km가 떨어진 농가 10여 호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전형적인 산골 마을이었다. 마을 인근은 농경지가 과소해서 대부분 2모작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마을 인근에서는 굴지의 부호도

7) 陸軍省(1939.9.26) 「告別式に弔電供与の件」 JAC-AR(ref.C04014800900).

8) 『毎日申報』 1939.7.11.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빈층도 없는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였다.<sup>9)</sup>

1940년 당시 이인석의 가계는 논 1,800평과 밭 900평의 소작농이었고, 연간 수입은 겨우 미곡 5섬에 불과하였다. 이인석 가계의 경제력은 당시 남선지역 농민의 평균 경지 면적 4,000평을 밑도는 영세농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인 아동의 취학율이 30% 이하였던 상황에서 이인석이 상당액의 학비 부담이 불가피했던 군서소학교와 옥천농업실수학교 취학을 고려하면, 가계 경제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던 것은 아닌가 한다. 어쨌든, 부친 이천전은 곤궁한 가계경제를 꾸려나가하고자 이인석을 비롯한 남동생 이의석과 함께 품팔이와 가마니 짜기 등 농가 부업을 겸하였다. 그러나 이인석이 취학 연령에 이르기까지 부친 이천전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가계경제의 유지가 곤란하였다. 그래서 이인석은 소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부친의 농사일을 거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편, 1939년 당시 하동리진흥회 회장이었던 광정호에 따르면, 이인석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비상하고 온화한 성품의 모범 소년이었다. 그러나 곤궁한 가정환경으로 소학교 진학을 포기했던 이인석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통학교 생도들이 책보를 끼고 귀가하는 친구들을 보고 한없이 부러워서 눈물을 흘렸다”<sup>10)</sup>고 한다. 향학열에 불타는 이인석은 부친에게 소학교 진학을 애원했고, 그래서 부친도 이인석의 지성에 감격해서 소학교 진학을 허락하게 되었다. 이인석은 12세의 늦은 나이에 인근 군서공립보통학교(1921년 6월 개교)에 진학하였다. 이인석은 약 60전에 달하는 월사금을 마련하고자 매달 3-4차례 땀감을 해서 내다파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1931년 3월 이인석(18세)은 군서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 2.2. 옥천농업실수학교와 마쓰오(増尾)교장

한편, 보통학교를 졸업한 이인석은 ‘조선 제일의 모범농가’를 꿈꾸며, 근면하고 성실하게 농사일에 전념하였다. 1935년 4월 이인석(21세)은 근대적인 농사기술을 체득하고자 부친과 마을 유력자 광정호의 도움으로 옥천농업실수학교에 진학하였다.<sup>11)</sup>

9) 和久正志(1940.4.1) 「仰見故李仁錫上等兵の殊勳」 『朝鮮』 제299호.

10) 『女性』 1940.4.

11) 옥천농업실수학교는 1927년 5월 옥천공립보통학교 부속으로 2년제 옥천공립농업보습학교로 개교해서 1936년 5월 옥천농업실수학교(2년제)로 개칭하였고, 1944년 옥천농업전문학교로 재차 개명하였다. 1945년 4년제 옥천농업학교로 재편되었지만, 1946년 9월 6년제 옥천농업중학교, 1951년 3년제 옥천농업고등학교, 1958년 2월 옥천상업고등학교, 1961년 11월 농과와 상과를 포함하는 옥천실업고등학교,

옥천농업실수학교 재학 과정에서는 이인석은 성실한 학교생활로 당시 마쓰오 세이지(増尾政治) 교장의 관심을 끌었고, 직접적인 훈도를 받을 수 있었다. 이인석은 재학 시절 우수한 성적과 함께 “실로 세간에 보기 드문 모범생”<sup>12)</sup>이라는 평판을 얻었다. 그 때문에 이인석은 1937년 2월 옥천농업실수학교 졸업과 동시에 당시 마쓰오 교장의 추천으로 같은 학교 조수에 발탁되었다. 당시 마쓰오 교장의 이인석에 대한 인물평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과언묵행이다. 이인석은 평소 온후하고 성실하며, 연구와 공부 그리고 실행의 성실함을 견지하였다. 그래서 걸치레와 달리 학과 성적과 실습에서 언제나 학교의 우등생이었다. 실습의 경우에는 시간외 독학으로 연구와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때로는 교사들마저 놀라게 하는 뛰어난 성적으로 교우들 가운데 흠모의 대상이었고, 주위의 신뢰를 독차지하였다.

둘째, 학업과 가업의 실천이다. 당시 재학생 가운데는 가업과 학업을 별개로 간주하는 경향이었지만, 이인석은 가계 장남이라는 책임감으로부터 학교에서 배운 농업 지식을 실제 농업 경영과 연계·실천해야 한다는 신념의 소유자였다. 이인석은 학교 생활의 와중에서도 틈틈이 귀가해서 배운 농업기술을 가계의 영농에 적용하였고, 양계, 양돈, 양토, 양우 등 다각적 농업을 실천하였다.<sup>13)</sup>

셋째, 투철한 정의감과 책임감이다. 이인석은 정의감과 책임감이 강한 청년이었다. 당시 마쓰오 교장의 훈도 방침은 철저한 논경 실습의 학과 수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학생의 동요와 반발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쓰오 교장의 훈도 방침에 순종했던 이인석은 교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기도 했지만, 동료들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보였다. 모교의 조수가 되어서도 후배들의 모범이 되었다.

넷째, 풍부한 감성과 수양 노력이다. 평소 온후한 사람은 감격성이 부족하고 기백을 결여하는 경향이지만, 이인석은 감성이 풍부하고, 정신훈화에도 깊이 감명·심취하는 경향이였다. 특히, 조수 임용 이후에는 정신수양의 일환으로 일본정신 체득에 노력하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쇄물과 잡지 등을 탐독했고, 때로는 마쓰오 교장을 방문해서 훈도를 청하기도 하였다.

1977년 옥천공업고등학교, 1999년 옥천전문대학, 2000년 옥천과학대학, 2008년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https://ko.wikipedia.org>, (검색일 2018.1.8).

12) 앞의 논문, 和久正志(1940.4.1).

13) 앞의 논문, 和久正志(1940.4.1).

### 2.3. 육군특별지원병 지원과 동기

한편, 1938년 2월 일본 정부는 조선인의 황민화와 병력자원화를 목적으로 일본 병역법의 선별적 적용을 인정하는 ‘육군특별지원병령’과 함께 같은 해 3월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관제’를 공포하였다. 지원자 조건은 만 17세 이상 조선인 남자라면, 누구나 육군특별지원병을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원자 모두가 육군특별지원병으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었다. 지원자는 도지사, 조선총독부, 조선군사령부가 주관하는 3차례의 엄격한 신체검사, 학과시험, 면접전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2차 전형 합격자는 조선총독부가 관할하는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이하, 육군병지원자훈련소)에 입소해서 6개월의 엄격한 교육과 훈육 과정을 수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재소 과정에서는 조선군사령부가 실시하는 제3차 전형과정식의 병적 처분에 따라 육군특별지원병으로 입영 할 수 있었다.

1938년 당시 옥천농업실수학교 모범 조수였던 이인석도 육군특별지원병 제1기생을 지원하였다.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병령 공포 이전 충북 옥천경찰서가 집계한 옥천군의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자는 20명에 달하였다.<sup>14)</sup> 1938년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충북지역 지원자는 합계 160명을 기록하였다. 1938년 5월 충북 도지사는 신체검사, 학과시험, 면접전형을 실시해서 적격자 58명을 선발하였다. 옥천군 출신 적격자는 이인석을 비롯한 5명이었다.<sup>15)</sup> 1938년 6월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는 도지사 추천의 적격자를 대상으로 제2차 전형(신체검사, 학과시험, 면접)을 실시해서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전후기 합계 404명을 선발하였다. 충북지역 합격자는 27명이었고, 옥천군 출신자는 이인석 등 5명 전원이었다.<sup>16)</sup> 이인석은 기혼자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육군특별지원병 제1기생으로 선발되었다.

한편, 이인석의 육군특별지원병제 지원 동기와 경위이다. 관련해서 ‘최초에 자체가 지원병을 지원하였을 때 즉시 쾌락하였든가요’라는 1940년 4월 조선일보 충북 취재기자 질문에 이인석의 부친 이천전은 “재산이 없음으로 남과 같이 국가에 기부도 못하는 몸임으로 몸으로서 황은의 만분지 일이라도 갚겠다고 내 자식이 말하기에 두말없이 승낙했습니다”<sup>17)</sup>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2003년 9월 옥천신문 취재기자의 질문에 미망인 유서분 여사는 “교장의 꼬임에 빠져 지원병에 입대”<sup>18)</sup>했다고 답변하였다. 다

14) 『毎日申報』1938.2.16, 2면.

15) 『毎日申報』1938.5.30.

16) 1938년 육군특별지원병 제1기생 최종 합격자는 408명이었고, 이 가운데 당시 군 단위에서 5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지역은 충북 옥천군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毎日申報』1938.6.11, 2면.

17) 『女性』1940.4.



음은 당시 이인석의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을 상담했던 옥천농업실수학교 마쓰오 교장의 회고이다. 옥천농업실수학교 조수 시절 ‘조선 제일의 모범농가’를 꿈꾸었던 이인석은 마쓰오 교장을 방문해서 육군특별지원 지원의 가부를 상담했고, 그래서 마쓰오 교장은 종래의 희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의하였다. 이인석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sup>19)</sup>

제국의 군인이 되는 것은 일본 남자의 최대 명예이며, 당연한 의무입니다. 금번 우리들 조선 청년들도 명예로운 군인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때문에 명실공이 내선일체의 봉공을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 조선 청년이 취해야할 도리라 생각합니다. 충군애국, 멸사봉공, 인고단련의 일본정신은 군인정신의 요체이기 때문에 같은 정신을 완전히 체득하기 위해서는 군대생활을 체험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조선 제일의 모범농가’도 일본정신을 완전히 체득하지 않고서는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일본정신을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2-3년 군대생활을 통해서 더욱 일본정신을 연마해서 ‘조선 제일의 모범농가’의 희망을 달성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쓰오 교장은 종래 ‘조선 제일의 모범농가’라는 장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일본정신을 체득하고자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을 결심했다는 이인석의 의지에 납득했고, 그래서 격려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바꾸어 말하면, 마쓰오 교장은 천박한 명예심과 공명심이 아닌 이인석이 주장하는 ‘병농양전(兵農兩全)’의 정신에 크게 감동했고, 자신의 훈육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였다. <sup>20)</sup> 실제로, 당시 충북 출신으로 이인석의 동기생이자, 제20사단 제78연대 소속으로 뉴기니아 전선에 참전했던 유기화는 당시 “청년들은 지원병으로 가는 것, 그 자체가 명예이며, 선택받았다는 자긍심을 갖는 분위기였다”<sup>21)</sup>고 증언하였다. 또한, 1941년 육군병지원자훈련소는 “지원병이란 지위를 얻어 장래 취직 수단을 삼으려는 소망을 가진 자 등 자못 불순한 동기 혹은 그릇된 애국심”<sup>22)</sup>을 우려하기도 하였다.<sup>23)</sup> 이들 육군특별지

18) 『옥천신문』 2003.9.27(<http://www.okinews.com>).

19) 앞의 논문, 和久正志(1940.4.1).

20) 『毎日申報』 1939.7.9.

21) 林えいたい(1995) 『証言集, 朝鮮人皇軍兵士』 拓植書房, p.154.

22) 朝鮮總督府陸軍志願兵者訓練所(1941.12), 「지원병은 이렇게 훈련한다」 『신시대』 제1권 제12호.

23) 2003년 옥천신문 인터뷰에서 1939년 당시 16세였던 이인석의 둘째 동생 이종두씨(79세)는 일방적으로 ‘형님이 이용당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옥천신문』 2003.9.27(<http://www.okinews.com>).

원병 지원자들은 “신분 변경이 용이하고 동시에 비교적 내지인 관공리와 지식층의 감화”<sup>24)</sup>에 민감한 존재들이었다.

### 3. 천황폐하 만세! 이상한 추모열

한편, 1939년 6월 이인석은 육군특별지원병 제1기생으로 육군병지원자훈련소에 입소해서 6개월에 걸친 학과교육과 엄격한 훈육 과정을 수료하고 1938년 12월 보병 제 20사단 제79연대에 입영하였다. 그러나 1939년 6월 중일전쟁에 출정해서 중국 산서성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이하에서는 이인석의 입소, 입영, 전사의 궤적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자.

#### 3.1. 육군병지원자훈련소의 교육과 훈육

1938년 6월 15일 조선총독부는 경성제국대학 문학부에서 1938년도 제1기생 202명의 입소식을 거행하였다. 입소식에는 내외빈 100여명과 함께 미나미(南) 조선총독, 오노(大野) 정무총감, 고이소(小磯) 조선군사령관 등 식민권력 거물급 인사와 윤덕영 대제학, 박영철 만주국 명예총영사, 윤치호 등 조선인 유력자도 대거 참석하였다.<sup>25)</sup> 조선총독부육군지원병훈련소의 설치 목적은 황국신민의 연성을 목적으로 (1)황도의 파악력(忠, 孝, 和)의 체득과 (2)황도의 실천력(기골, 식견, 신념, 신체)의 함양이었다. 교과 편제는 훈육, 국어, 국사 3과목의 학과교육과 함께 보다 많은 시간을 할당해서 국체의 존엄성과 국민적 지조의 함양 그리고 지원병의 자질 연성이었다. 육군병지원자훈련소 교육은 “엄격한 규율에 따른 학력 기능보다도 오히려 정신 도장으로 반도 청년을 육성한다”<sup>26)</sup>는 “황국훈의 성훈도장(聖訓道場)”<sup>27)</sup>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

훈련생도의 교육훈련은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훈련 강령에 따라 충량한 황국 신민 혹은 충절한 황군 양성을 위해 국체명징(国体明徴), 인고단련(忍苦鍛鍊), 일역관행(一意慣行)의 훈육과 함께 일본식 예의작법을 체득해서 본격적인 입영생활을 준비한다는 것이었다.<sup>28)</sup> 훈련소 일정은 오전 5시 기상과 함께 황성요배, 황국신민의 칙사 제

24) 朝鮮總督府警務局(1941.12) 「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

25) 『每日申報』1938.6.16, 4면.

26) 朝鮮總督府(1943) 『朝鮮事情』, p.208.

27) 佐野八十衛(1943) 『戰ふ朝鮮』 内外公論社, p.65.

창, 황국신민 체조를 시작으로 7시간의 교육훈련을 거쳐 정확히 오후 4시 50분에 일과를 종료하였다. 이후에는 청소, 석식, 자습, 점호, 목수, 반성을 거쳐 오후 9시 취침소등하였다.<sup>29)</sup> 훈련소 생활은 입소기간에 걸쳐 금주와 금연은 물론이고 외출 외박도 일절 금지하였다. 1930년대 조선 문단의 대표적인 여류작가였던 최정희는 단편소설 ‘야국초’에서 훈련생도의 일상을 교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월월화수목금금”<sup>30)</sup>의 군대생활을 방불케 했다고 묘사하였다.<sup>31)</sup>

육군병지원자훈련소 훈육 실태와 관련해서 1940년 10월 조선문인협회 회원 38명은 이른바 ‘문사부대(文士部隊)’를 결성해서 육군병지원자훈련소를 참관하고, 몸소 체험한 소감을 문예잡지 「삼천리」에 게재하였다.<sup>32)</sup> 그 가운데 최정희는 ‘지원병! 당신들의 팔과 다리와 가슴은 구리쇠와 같이 강합니다. 서고 하는 동작은 무척 씩씩하고 민활합니다. 그 음성은 몹시 우렁칩니다. 당신들은, 쉬이 한사람의 병사가 되기에 넉넉합니다’라는 소감을 게재하였다. 보성전문 유진오 교수는 ‘지원병훈련소를 견학하고 그 질서와 규율에 다시금 탄복하였다...그 일사불란의 훈련 속에서 동아신질서 건설의 굳센 힘도 울어 나올 것이라 믿는다’는 소감을 게재하였다. 여류작가 모윤숙은 ‘여러분의 소리가 것처럼 우렁차서, 나는 가슴이 몹시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즐겁게 뛰었습니다. 반도사람에게서 보지 못하던 굳센 팔, 힘센 다리, 당신들이 지금 붉은 태양 아래서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이인석은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의 엄격한 훈육과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근대적인 질서와 규율, 국가와 국민, 충성과 희생의 고귀함 등 국가관을 체득하였다.<sup>33)</sup>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소장 우미다(海田)대좌는 “이인석군은 훈련소에 들어 올 때부터 침착 온순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제2 훈련반 반장으로 6개월 훈련을 마쳤고, 작년 12월 수료식에서 발군의 성적으로 우등상까지 수상했다”<sup>34)</sup>고 증명하였다. 이인

28) 1942년 3월 동래 중학을 졸업하고 1942년 6월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제2중대 소속의 10기생으로 입소한 경남 좌병영 출신의 김성수 회고에 따르면, 훈련소 생활은 고된 훈련의 연속으로 감옥과도 같았다고 한다. 김성수(1999) 『상이군인 김성수의 전쟁』 금하출판사, p.56-62.

29) 朝鮮總督府第一陸軍兵志願者訓練所(1942) 『生徒諸調査表』.

30) 교육출판기획실편(1988) 『교과서와 친일문학』 동녘, p.201.

31) 朝鮮初等教育研究會(1938.10) 「朝鮮志願兵訓練所參觀記」 『朝鮮の教育研究』 제121호.

32) 三千里社(1940.12.1) 「文士部隊와 志願兵」 『三千里』 제12권 제10호.

33)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요구하는 조선총독부지원자훈련소 생활은 생도들의 자살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1940년 12월 훈련소에 입소한 함남 단천 출신의 다마가와 경청(玉川京靑, 23세)은 1941년 2월 23일 오전 6시 40분 훈련소를 탈출해서 경춘철도(주)의 사선에 뛰어들어 자살하였다. 『每日申報』 1941년 2월 26일. 건게서, 林えいたい(1995), p.135.

34) 『每日申報』 1939.7.8, 3면.

석의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수료 성적은 전체 201명 가운데 2등이었다.<sup>35)</sup> 1938년 12월 이인석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수료식에서 신체건강, 품행단정, 학력우수, 교련우수 등 성적 우수자 8명 가운데 한 명으로 우등상을 수상하였다.<sup>36)</sup> 이인석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훈육 과정을 거치면서 “독실명민(篤實明敏)한 병대”<sup>37)</sup>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1938년 12월 이인석은 용산 주둔 제20사단 보병 제79연대(木越부대)에 배속되었다.<sup>38)</sup> 당시 제79연대가 실시한 육군특별지원병 초병교육은 다음과 같았다.<sup>39)</sup>

1938년 12월 징집 현역병 장정과 함께 15명은 보병 제79연대 보충대에 입영해서 제1중대에 배속되었고, 지원병특별반이 편성되었다. 초년병 교육교관 川高소위 휘하에 生田군조가 반장에 임명되었다. 나중에 예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귀대한 伊藤修見 견습사관이 가담해서 제1기생 교육을 담당하였다. 제1 검열을 마친 특별지원병들은 5월 11일 용산역을 출발해서 복지 야전본대의 보충병으로 출정하였다. 국민개병 징병제의 내지 장정들과 달리 지원자들 가운데 선발된 입영자였기 때문에 지원병은 전체적으로 능력이 높았다.

제19-20사단 예하 부대에 배속된 육군특별지원병은 각 사단 차원의 “별반조직”<sup>40)</sup>으로 일정 기간의 적응훈련과 교육검열을 거쳐 대대, 중대, 소대에 배치되었다. 육군특별지원병은 입영 이후 3개월에 걸친 초병교육을 거쳐 대대, 중대, 소대, 분대 단위의 기동훈련, 산개훈련, 실탄훈련, 야간훈련, 진지훈련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훈련을 받았다. 이후 연대장이 주관하는 제1기 교육검열(기본동작, 사열, 행진, 사격)을 거쳐 일등병으로 진급하였다. 물론, 상등병 진급을 위해서도 제2기 교육검열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 일본군의 상등병 정원이 부대별 20%에 불과했기 때문에 일등병 가운데 진급 대상 40%는 상등병 진급에서 탈락하였다.<sup>41)</sup>

35) 앞의 논문, 佐野八十衛(1943), p.64.

36) 수료생 201명 가운데 발군의 훈련성적으로 우량생 표창을 받은 생도는 윤종록(강원), 최규협(전남), 김종연(전남), 강석주(경기), 오용복(함남), 박중화(황해), 이인석(충북), 김인조(경남), 장몽석(강원)의 합계 9명이었다. 『毎日申報』 1938.12.8, 3면.

37) 金文輯(1939.7.16) 「祖國に殉じた最初の半島志願兵祝ぶべき死! 血に生きたまわれらの李仁錫君」 『國民新報』.

38) 『朝鮮行政』 제3권 제1호, 1939.1.

39) 歩兵第七十九聯隊史編集委員會編(1984) 『歩兵第七十九聯隊史:朝第二〇五四部隊・朝鮮第二十三部隊』, 293-294면.

40) 『毎日申報』 1938.12.24, 2면.

41) 「朝鮮文化及産業博覽會, 志願兵編」 『三千里』 제12권 제5호, 1940.5.1.

### 3.2. 영웅적 전사와 정황의 의문

한편, 1939년 5월 이인석일등병은 제20사단 보병 제79연대 충원병력으로 화북전선에 출정하였다. 1939년 6월 22일 제79연대는 산서성 문희현(聞喜縣) 요장(腰莊) 만촌(灣村) 서측에 위치하는 무명사(無名祠)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인석일등병의 소속 중대(150여명)는 당일 중국군의 야습을 예상하였다. 실제로, 중국군의 야습은 정확히 6월 22일 오후 12시부터 개시되었다. 중국군은 무리를 지어 수류탄을 던지며, 일제히 고지점령을 감행하였고, 다음날 23일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이인석일등병의 소속부대는 일본군이 장기로 하는 소총전과 돌격전으로 응전하였다. 그 와중에서 이인석일등병은 중국군이 던진 수류탄 파편으로 좌퇴부의 중상을 입고 말았다. 당일 전투에서 소속부대의 다카다(高田)대대장과 히로카미(広神)소대장이 전사했고, 미야케(三宅)분대장도 심한 중상을 입었다. 중국군도 “귀신도 울고 가는 장렬무비한 이인석일등병의 분전맹격(奮戰猛擊)”<sup>42)</sup>의 덕분인지 새벽에 이르러 다수의 사체를 남기고 후퇴하였다.

한편, 이인석일등병은 위생병의 응급조치에도 위급한 용태였고, 다량의 출혈과 함께 혼수상태에 빠져들었다. 전우의 호명으로 겨우 정신을 차린 이인석일등병은 ‘분대장님 죄송합니다. 우미다대좌님께도 잘 부탁드립니다. 훈련소 후배들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유언과 함께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고 전사하였다. 이인석일등병의 전사 시각은 6월 23일 오전 0시 45분이었다. 이인석일등병의 전사 전황을 최초로 묘사한 조선총독부 촉탁 가즈히사 마사시(和久正志)는 “참으로 장렬한 전사였고, 숭고한 최후였다. 더구나, 충용무비의 무훈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운이 없어서 병력을 손실해서 부대장에게 참으로 죄송하다’라며 제국의 군인으로 책임감을 견지하고 같은 봉공의 길을 가는 후배들의 후사를 부탁하고, 은사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별을 고하였고, 천황에 대한 최후의 감사를 올리고 황실의 번영을 기원하며 서거하였다. 그의 심사, 태도, 숙연함은 소매를 흠치게 한다”<sup>43)</sup>고 격찬하였다.<sup>44)</sup>

42) 앞의 논문, 和久正志(1940.4.1).

43) 앞의 논문, 和久正志(1940.4.1).

44) 1939년 10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故이인석상등병의 전사를 기념하고자 잡지『總動員』제1권 제5호를 ‘육군특별지원자특집호’를 발행하였다. 그 가운데 ‘故이인석상등병 전사의 실황’을 게재했는데 전사 장면과 관련해서 ‘무언가 남기고 싶은 말은 없는가’라는 전우의 요청에 이인석은 “일본은 필히 성전에서 승리할 것이다. 나는 성전의 와중에서 죽게 되어 참으로 미안하다. 보다 국가에 봉공할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황군의 무운장수를 빌면서 지원병 제군을 잘 부탁드립니다. 전해 달라”는 유언과 함께 만면의 웃음을 띠우며, 천황폐하 만세를 삼창하고 간호병의 손을 굳게 잡고서 숨을 거두었다고 묘사하였다. 「故李仁錫上等兵戰死の実況」 『總動員』 제1권 제5호, 1939.10.

가즈히사가 묘사한 이인석일등병의 전사 정황은 치명적인 중상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가까운 의식을 유지하며,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는 인상이다. 그러나 이인석일등병은 6월 22일 밤 12시 전투 개시 이후 단지 45분만에 전사하고 말았다. 전투 개시와 함께 극히 짧은 시간에 최후를 맞았다는 사실은 중국군이 던진 수류탄 공격에 치명상을 입었음을 의미하는 한편, 중국군의 과상공격의 와중에서 전우의 도움을 받으면서 최후를 마쳤다고 보기도 곤란한 정황이다. 전사 정황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는 1939년 11월 조선군사령부 참모장이 육군성 앞으로 제출한 “육군특별지원병 중군상황 조서”<sup>45)</sup>이다. 조서에 따르면, 제20사단 제79연대 배속 육군특별지원병의 중군과 성적은 당시 조선군 제20사단 예하 제77연대, 제78연대, 제80연대와 달리 지극히 냉소적인 평가로 일관하고 있다. 관련해서 제79연대가 제출한 조서에서 이인석상등병의 전사 정황은 다음과 같다.<sup>46)</sup>

모 중대에 속하는 모 지원병은 1939년 6월 22일 산서성 문희현 만산촌 부근 무명사고지 점령 이후 적의 역습을 받아서 중대 주력과 함께 출격하였다. 모 지원병은 좌측 대퇴부에 수류탄 파편상을 입게 되자 전황이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아이고! 비명을 지르면서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서 전투의 승패에는 안중에도 없었다. 전사 직전 전우로부터 정신차릴 것을 주의받았지만, 기어드는 목소리로 천황 폐하 만세를 삼창(三唱)하고 전사하고 말았다.

당시 조선군 제20사단 소속으로 출정한 육군특별지원병 가운데 전사자는 1명뿐이었기 때문에 같은 조서에서 호명하는 모 지원병은 바로 이인석일등병이다. 그럼에도 제79연대는 다른 예하 연대와 달리 왜 이인석일등병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는가. 제79연대가 제출한 육군특별지원병의 전황 보고는 1938년 7월 8일 이래 조선인 사회에 유포된 이인석상등병의 ‘장렬무비한 명예전사’와는 크게 배치된다. 이인석일등병의 전사 정황은 충군애국, 멸사봉공, 인고단련이라는 당시 일본군의 상무정신과도 크게 괴리되는 것이었다. 결국, 제79연대가 ‘모 중대에 속하는 모 지원병’으로 소속과 실명을

45) 朝鮮軍參謀長加藤鑰平(1939.11) 「陸軍特別志願兵縱軍狀況に関する件」 JAC-AR(ref.C04121631700)

46) 보병 제20사단 제79연대 배속 육군특별지원병 24명의 실전 성적과 평가이다. 보병 제79연대 보고서는 (1)전장에서 형이상의 관찰이다. 체력과 정신력에서 극히 우수한 자는 극소수이고, 양호한 자와 불충분한 자가 각각 절반을 차지해서 추가적인 훈련이 요구된다. 특히, 양호한 자는 일본인 일반병의 중간 정도에 불과하다. (2)전투 성적이다. 적진에 대한 사격의 경우와 비교해서 탄환우비의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금후 일층 정신교육의 강화와 황군의식의 함양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朝鮮軍參謀長加藤鑰平(1939.11) 「陸軍特別志願兵縱軍狀況に関する件」 JAC-AR(ref.C04121631700).

밝히지 않은 것은 앞서 가르히사의 묘사와는 정반대로 수치스런 불명에 전사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이인석일등병은 과연 심각한 중상과 과다 출혈의 와중에서도 과연 ‘천황폐하 만세’를 삼창하는 장절한 최후였는가하는 점이다. 관련해서 요시미는 “조선에서 이인석 성명은 감추고 모 중대의 모 지원병으로 기술하였고, 그의 사후에 대해서도 낮게 평가하였다. 따라서 그의 전사는 같은 조서에서 작위되거나 미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sup>47)</sup>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인석의 전사 정황과 관련해서 1937년 7월 제 20사단 보병 제78연대 소속 제3대대장(소좌) 혹은 전위 부대장으로 중일전쟁에 참전해서 조선인 최초의 특훈갑 금치훈장을 수상했던 김석원 장군의 증언이다.<sup>48)</sup> 김석원은 “나는 100회 이상의 실전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 동안 수백명의 부하가 쓰러지는 모습을 옆에서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만, 단 한사람도 ‘텐노헤이카 반자이(천황 폐하 만세)’를 부르며 죽는 사람은 못 보았다. 대개는 어머니를 부르며, 쓰러지는데 그 중에는 아라레다(당했다)니 다노무요(부탁한다)니 하고 쓰러지는 사람은 더러 있었다”<sup>49)</sup>고 증언하였다. 이인석일등병은 ‘천황폐하 만세’가 아니라 아마도 ‘어머니’를 부르며 최후를 마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치열한 야간전투 정황과 치명상에 따른 혼수상태를 고려하면, 이인석일등병이 어머니조차 부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인석일등병의 전사와 관련해서 ‘천황폐하 만세’를 강조하는 요시미는 돌발적인 상황과 죽음에 처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심각한 몰지각을 드러낸다. 결국, 이인석일등병의 전사는 이후 검토하는 바와 같이 식민권력 차원의 치밀한 작위와 미화된 죽음이었다.<sup>50)</sup>

### 3.3. 특별한 죽음과 이상한 추모열

이인석일등병의 전사 전보가 조선총독부 앞으로 도착한 것은 1939년 7월 6일 오후

47) 전게서, 吉見義明(1987), p.135.

48) 三千里社(1939.6.1) 『三千里』 제11권 제7호. 『毎日申報』 1942.2.3. 金錫源(1977) 『老兵의 恨』 育英社.

49) 전게서, 金錫源(1977), p.187-188.

50) 이인석일등병의 전사 시각은 6월 23일 오전 12시 45분이었다.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겸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소장 시오바라에 따르면, 이인석은 북부에서 등까지 파편이 관통해서 장이 절단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피탄 당시 이인석일등병은 심각한 중상이었고, 그래서 빠르게 혼수상태에 빠져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와중에서 이인석일등병이 재차 정신을 차려서 여러 유언을 남기고 천황폐하 만세까지 삼창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더구나, 중국군의 공격은 아침까지 계속되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였고, 라디오를 통해서 세간에 알려진 것은 7월 7일이었다. 당시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는 “반도의 사나이로 총칼을 잡고 황군의 용사로서 제일선에 나섰다가 흥아의 새로운 여명을 불으며, 적탄에 맞아 대륙건설의 초석…당당한 제국의 군인으로 반도 남아의 의기를 빛낸 이야기”<sup>51)</sup>라는 ‘반도인의 영예, 지원병 최후의 전사, 충북 옥천 출신 이인석군’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인석일등병의 전사 소식에 반응하는 당시 조선인 사회의 추모열은 다음과 같았다.<sup>52)</sup>

우리 3,300만 형제의 한 사람으로서 뽐혀 흥아의 성업에 칼을 들었던 이인석군! 성전의 두 번째를 맞이한 어제 그의 명예로운 전사를 들었구나. 형제여! 보라! 흥아의 역사는 어제 또한번을 더하였도다. 우리도 세계에 내어 놓아도 거리낌이 없을 대장부를 갖었으니 인류의 평화와 행복의 전설도 우리 형제의 의기와 피로서 이루어질 것을 또한번 마음속에 다져라. 한 사람의 형제의 피는 영원한 명예를 노래한다느니 보다 다음날 위대한 역사를 거두는 씨앗이 되지 않을까 보나.

한편, 1939년 7월 6일 오후 9시경 조선총독부로부터 이인석일등병의 전사 통보를 받은 옥천군수는 경찰서장, 농업실수학교 교장, 재향군인회 회장, 충남도회 의원 등 지역유지를 동원해서 이인석일등병의 조문을 서둘렀다. 오후 10시경 옥천군수 일행을 맞이한 이인석일등병의 부친 이천전은 “나는 아들이 출정할 때 이 이별이 마지막이라 각오했습니다”<sup>53)</sup>라는 인사말과 함께 미망인 유서분 여사도 3살의 여아(이정숙)를 안고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sup>54)</sup> 라는 인사말을 남겼다. 당시 정황과 관련해서 2003년 미망인 유서분 여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하루는 일하고 고단해서 잠이 들었는데 누가 불러. 시아버님이 나갔는데 군청에서 왔나, 어디에서 사람이 와서 이인석이 운명했다며 울면서 종이조각을 읽고 한참을 강연을 해, 잠자다가 갑자기 당한 일이라 물어보지도 못했어”<sup>55)</sup>라고 증언하였다. 이인석일등병의 유가족은 ‘황국훈의 현현(顯現)’이라 칭송되는 와중에서 아들과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닌 기쁨이라는 심각한 감정 왜곡을 강요당하였다.

51) 『毎日申報』 1939.7.8. 金文輯(1939.7.16) 「祖国に殉じた最初の半島志願兵祝ぶべき死! 血に生きたまわれらの李仁錫君」 『国民新報』.

52) 『毎日申報』 1939.7.8.

53) 앞의 논문, 和久正志(1940.4.1).

54) 朝鮮總督府情報課(1944), 『新しき朝鮮』, p.48-50.

55) 『옥천신문』 2003.9.27.



한편, 이인석일등병의 전사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했던 문인은 화둔(花豚) 김문집이었다.<sup>56)</sup> 김문집은 어머니 기일이었던 1939년 7월 8일 신문을 통해서 전사 소식을 접하였다. 김문집은 ‘우리 이천삼백만의 충성이 반영된 희망의 표징’이라며 이인석상등병의 전사를 자축하였다. 자축 이유는 이인석상등병이 ‘반도는 폐하를 받들고 충의를 다하고 국가 유사시에 충용을 다 바치는데 결코 조선인이 일본인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다짐’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김문집은 ‘두고 보라! 백명의 이인석, 천명을 죽이는 제2의 귀신 이인석 등등 계속해서 어떤 자들이 뛰쳐나올지 모르는 호국의 귀신들이 이제부터 靖国神社의 방을 신청하기 위한 예약이 쇠도할 것’이라 호언하였다. 이어서 ‘이군의 죽음은 오랫동안 수면상태에 빠져 있던 우리 영혼에 너무나 큰 충격이자 감격’이었고 그래서 ‘우리 인석 군을 보라! 이인석님 만세! 희망의 이천삼백만 만세!’를 반복하며 축배를 들었다고 한다.

한편, 1939년 7월 이인석일등병에 대한 조의는 조선 관내의 경향 각지는 물론이고 일본, 중국, 만주로부터 답지하였고, 이인석의 추모열은 각계각층을 망라하였다. 실제로, 1939년 7월 8일 이타가키(板垣) 육군대신은 ‘진중의 꽃’이라는 요지의 조의, 육군 병지원자훈련소 소장의 조의, 7월 17일 영월 요리집 기생들의 조의금, 강화군 소학교 어린 학생들의 조의금, 경성부 소재 중국요리집 직원들의 조의금, 중국 북경 거주 문창린의 조의금, 화신백화점 사장 박홍식의 조의금, 황후의 위문품, 카네미츠(金光) 척무대신의 조문과 조의금 등 끊이지 않았다. 또한, 미나미 조선총독은 “이군이 흘린 피는 일본과 조선이 하나의 몸으로 합치는 풀”<sup>57)</sup>이라며 크게 감격하였다. 1941년 당시 조선총독부 법무국이 조사한 이인석일등병의 전사에 대한 조선인 사회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sup>58)</sup>

조선인 최초의 제국군인으로 이들의 활동 여하는 일반 조선인의 가치를 좌우하는 시금석이다. 전사상자에 따른 일반의 격앙과 감격이 앙등해서 장의에서는 향당 부민

56) 1907년 대구 출생의 김문집은 일본 와세다(早稻田) 중학과 마쓰야마(松山) 고교를 거쳐 동경제대 문과를 중퇴하였다. 1939년 조선문인협회 간사를 지냈으며,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총재부 촉탁을 역임한 이후 1941년 일본인으로 귀화하였다. 김문집은 1930년대 조선 문단에 등단해서 활발한 문예활동을 펼쳤고, 1937년 ‘비평예술론’에서 “가치의 창조가 작가의 생명이라면, 가치의 재창조가 비평가의 혈혼”이라며 문예비평의 독창성을 강조하였다. 김문집은 조선 문단에서 문예비평이라는 새로운 문예 장르를 개척했고, 비평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 문인이었다. 『国民新報』 1939.7.16, 3면.

57) 『国民新報』 1939.7.16, 3면.

58) 朝鮮總督府法務局(1941) 「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

참가자 5-6,000명에 달하는 상황이며, 조선 전체의 먼과 부락으로부터 애국단체의 조의금은 막대한 금액에 달하는 등 지원병의 용장스러운 전사는 조선인 사회의 애국심을 크게 양양시키고 있다.

실제로, 1939년 7월 이인석일등병의 전사 소식 이후 2주일에 걸쳐 약 1,000여명의 조문객을 시작으로 조의금 약 5,000원, 조건 76건, 조의문 59통에 달하였다.<sup>59)</sup> 더욱이, 1940년에 이르러 이인석상등병의 영전에는 약 2,100통의 조의문과 조의금 합계 1만 여원을 기록하였다.<sup>60)</sup> 또한, 옥천신문에 따르면, 이인석일등병 전사 이후 “이들 가족들은 일제 강점기 동안 전국에서 온 부의금 등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만주 좁쌀을 팔아 순례한다며 찾아온 사람들에게 점심이라도 대접할 수 있었다”<sup>61)</sup>고 한다. 또한, 1940년 1월 옥천군 출신 동기생(유동준, 육동만, 조백주)을 포함한 충북 출신 육군특별지원병 9명이 이인석상등병의 유가족을 위문하였다.<sup>62)</sup> 1939년 7월 이래 이인석일등병의 이상한 추모열과 관련해서 미망인 유서분 여사는 “그때부터 3년이 넘게 군서면 하동리 이인석 상병의 집은 옥천 뿐 아니라 전국에서 온 순례객들로 넘쳐났는데, ‘어디서든 안온 데가 없었어. 선생들이 학생을 데리고 왔고, 그 때는 사람이 죽었어도 이름은 안 잊어버리고 찾아온다 싶었어’<sup>63)</sup>라고 증언하였다.

#### 4. 이인석상등병과 죽음의 정치성

이인석일등병은 3차례의 성대한 고별식, 금치훈장 수상, 야스쿠니신사 합사 등 파격적인 서훈·현장으로 일약 조선인을 대표하는 호국영령으로 추모되었다. 또한, 이인석일등병의 전사는 다양한 문화 매체를 통해서 조선인 군국영웅으로 서사화되었다. 이하에서는 이인석일등병의 파격적인 서훈·현장과 영웅적 서사화 그리고 죽음의 정치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59) 『每日申報』 1939.7.20, 3면.

60) 伊藤猷典(1942) 『鮮滿の興亞教育』 日黒書店, p.48.

61) 『옥천신문』 2003.9.27(<http://www.okinews.com>).

62) 『每日申報』 1940.1.27, 3면.

63) 미망인 유서분 여사는 남편 이인석상등병의 전사로 인해 둘째 시동생의 장남을 양자로 들였다. 『옥천신문』 2003.9.27(<http://www.okinews.com>).

#### 4.1. 식민권력의 서훈·현창

1939년 7월 10일 조선군사령부는 이인석일등병의 1계급 특진을 결정해서 상등병 진급을 추서하였다.<sup>64)</sup> 당시 제80연대의 경우, 육군특별지원병 22명 가운데 9명을 1939년 8월 제1차 선발에 따라 상등병으로 진급시켰고, 9명을 하사관 후보생으로 선발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제80연대는 중일전쟁에 참전한 22명의 육군특별지원병 가운데 81%에 상당하는 18명이 상등병으로 진급했지만, 나머지 4명은 상등병 진급에서 탈락하면서 일등병으로 제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인석의 상등병 특진은 앞서 전사 정황 등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서훈이었다. 이하에서는 이인석상등병의 3차례 고별식, 금치훈장 수상, 야스쿠니신사 합사 경위와 실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첫째, 3차례 합동 고별식이다. 1939년 9월 제20사단 제78연대 위수지 용산에서는 이인석상등병을 비롯한 제10회 전사자 영령 759명의 합동 고별식을 거행하였다.<sup>65)</sup> 9월 30일 육군대신은 “홍아의 초석으로 전몰한 육군 보병 상등병 이인석 및 이형수 영령에 대해 哀心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표한다”<sup>66)</sup>는 조전을 타전하였다. 또한, 1939년 10월 2일 육군병지원자훈련소는 이인석과 이형수<sup>67)</sup> 상등병의 합동 고별식을 거행하였다.<sup>68)</sup> 고별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한 미나미총독과 나카무라(中村)조선군사령관 등 식민권력의 수뇌진과 관민 유력자 그리고 내외빈 3,000여명이 참석하였다.<sup>69)</sup> 1939년 10월 3일 옥천군은 이인석상등병 장례를 옥천 군민장으로 거행하였다.<sup>70)</sup> 옥천 제2소 학교(현재, 삼양초등학교)에서 거행된 국민장에는 유가족과 친지는 물론이고 충북지사 등 지역유지 등 약 5,000명이 참석하였다.<sup>71)</sup> 이인석상등병의 유해는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명상에 매장되었다가, 1944년 7월 하동리 선산 묘역으로 이장되었다.<sup>72)</sup>

64) 『東亞日報』 1939.7.13, 4면.

65) 『每日申報』 1939.10.1.

66) 陸軍省(1939.9.28) 「第20師團長 合同告別式に弔電供与の件」 JAC-AR(ref.C07091293900).

67) 육군특별지원병 출신 제2호 전사자 이형수상등병(23세)은 전남 고흥 출생의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제1기생이다. 그는 1939년 5월 제20사단 보병 제80연대(岩切부대) 제9중대 배속으로 북지전선 산서성 전투에 출정하였다. 1942년 3월 이형수상등병은 이인석상등병과 함께 공7급 훈8급 금치훈장을 수상했고, 1942년 4월 24일 호국 영령으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다. 『三千里』 제12권 제5호, 1940.5.1. 『每日申報』 1942.3.27-29.

68) 『每日申報』 1939.10.3, 2면.

69) 塩原時三郎(1939.9.26) 「弔詞(弔電)賜ハリ渡件」 JAC-AR(ref.C07091293900).

70) 『每日申報』 1939.7.16, 3면.

71) 『每日申報』 1939.10.6, 4면.

72) 필자는 2016년 10월 14일 옥천신문 이안재 사장의 안내로 故이인석상등병의 묘역을 찾아서 참배할 수 있었다. 묘지 상석에는 ‘勳8等 功7級 故陸軍 上等兵 李仁錫之墓 昭和十九年 七月 七日’이 새겨져 있었다.

둘째, 금치훈장의 서사(叙賜)이다. 1940년 2월 10일 내각 상훈국과 육군성은 제19회(육군 제17회)의 논공행상을 발표하였다.<sup>73)</sup> 행상의 대상자는 전사상자 526명, 전병사자 2,624명, 합계 3,150명이었다. 같은 논공행상에는 1931년 만주사변 당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장병과 군속 다수를 포함하였다.<sup>74)</sup> 이 가운데 금치훈장의 서사 대상자는 합계 740명이었다. 금치훈장 수상자 가운데는 최초의 육군특별지원병 출신으로 수훈을(殊勳乙)을 수상한 이인석상등병과 만주국의 치안숙정 공작에서 공훈을 세운 관동군 촉탁 김동한의 육일장(旭日章) 6등을 포함하였다.<sup>75)</sup> 특훈갑(特勳甲)은 육군소장이이노 겐쥬(飯野賢十)를 비롯한 18명이었고, 특훈을 서훈자는 이인석상등병이 유일하였다. 1940년 10월 2일자 매일신보는 이인석의 금치훈장 서사와 관련해서 ‘영광의 극치, 파격의 은진, 천추에 빛나는 수훈을’이라 논평하였다. 훈상 내역은 공칠급 훈팔 등의 금치훈장(白色桐葉章)과 함께 매달 150엔의 연급이 지급되었다.

셋째, 야스쿠니신사 합사이다. 1941년 9월 10일 야스쿠니신사 임시대제위원부(臨時大祭委員部)는 조선 관계 영령 95명의 야스쿠니신사 합사를 공포하였다. 그 가운데 “반도출신의 지원병으로 용명을 떨치고 최초로 전사한 이인석상등병을 비롯해서 제일선에서 활약한 통역과 군속 등 8명을 포함”<sup>76)</sup>하였다. 1941년 10월 17일 아들 혹은 남편을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하는 재조조선인 유족 152명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였다. 조선인 전사자 유족은 12명이었고, 그 가운데 이인석상등병의 모친은 백발에 하얀 소복차림으로 참배하였다.<sup>77)</sup> 또한, 1941년 10월 16일 육군병지원자훈련소 훈련생 1,300명은 대강당에서 합사 기념 위령제를 거행하였다. 당시 훈련생도를 대표했던 도리아마 이치로(鳥山一郎)은 “우리 후배 지원병은 이상등병의 전사를 거울삼아서 반도 지원병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sup>78)</sup>라는 조사를 낭독하였다. 이인석상등병은 전사를 통해서 야스쿠니신사의 군신 반열에 올랐다.

73) 1940년 1월 2일 조선군 제20사단장 七田一郎이 천황 앞으로 1937년 7월 11일부터 1939년 12월까지 전황을 상주하였다. 같은 기간 제20사단의 전과는 사살 약 13만 800명, 포로 약 4,400명이었던 반면, 인적 손실은 전사 4,742명(장교 198명), 전병사 686명(장교 3명), 전상자 3만 3,307명(장교 459명)을 기록하였다. 第二十師團長 七田一郎(1940.1.11) 「第二十師團上奏」 JAC-AR(ref.C11111494600).

74) 『大阪朝日新聞』 1940.2.10, 6면.

75) 간도협조회와 김동한에 대해서는 김효순(2015) 『간도특설대』 서해문집, p.96-109. 『毎日申報』 1940.2.11.

76) 『毎日申報』 1941.9.20, 4면.

77) 당시 매일신보는 이인석상등병 모친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정황과 관련해서 “백발이 여사의 어깨가 크게 물결친다. 감격에 사뭇쳐 흐르려는 눈물을 꼭 참고 있는 듯 싶다. 인석아! 라고 부르며, 통곡하고 싶을 것이다”라며 독자들의 감성을 자극하였다. 『毎日申報』 1941.10.19, 3면.

78) 『毎日申報』 1939.10.3, 2면.

이후, 조선총독부는 “귀신을 올리는 장렬무비의 전사, 추앙하라! 고이인석상등병”<sup>79)</sup>의 슬로건을 내걸고 이인석상등병을 일본 정신의 체현자 혹은 군국미담의 상징으로 이상화하였다. 그래서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우미다 소장은 일사보국, 분골쇄신, 칠생봉공의 적성을 다짐했던 이인석상등병의 서신을 공개하는 한편, 지원병의 모범으로 400명을 수용하는 훈련소 대강당 정면에 이인석상등병의 영정을 거치해서 육군병지원자훈련소의 수호신으로 추앙하였다.<sup>80)</sup> 또한, 군사원호단체 애국부인회 조선지부는 육천군과 협력해서 이인석상등병의 표충비(表忠碑) 건립을 추진하였다.<sup>81)</sup> 결국,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는 이인석상등병을 “북지 성전에서 불멸의 훈공을 세워 홍아의 초석”<sup>82)</sup>이라 헌창하였다. 이인석상등병은 죽음을 통해서 일약 조선인의 군국영웅으로 승화하였고, ‘특별한 죽음으로 미화되었다.’<sup>83)</sup>

## 4.2. 조선인 사회와 영웅적 서사화

1938년 6월 육군병지원자훈련소 개소 이래 훈련생도의 일거수 일투족은 조선인 사회의 주요 관심거리였다. 그 와중에서 이인석상등병의 전사는 내선일체와 순국봉공의 표본으로 조선인 사회의 추모열을 자극하였다. 1939년 7월 8일 이인석상등병의 전사 소식이 매일신보에 게재되었을 당시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우미다 대좌는 아직 “부대장으로부터 전적 보고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sup>84)</sup> 혹은 이인석상등병의 부친 이천전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활동했나요”<sup>85)</sup>라고 질의하였다. 또한, 1939년 9월 16일 국민신보에 따르면, “아직 상전(詳電)이 없기 때문에 이인석의 훈공과 전사 상황이 전해지지 않았다”<sup>86)</sup>고 전하였다. 그럼에도 조선인 사회는 이인석상등병의 전사 정황과

79) 앞의 논문, 和久正志(1940.4.1).

80) 최정희의 단편소설 ‘야국초’에서 “강당은 넓습니다. 창이란 창은 모두 열려 있어서 바람이 들어와 추울 정도였습니다. 고이인석, 이형수 양 위의 사진이 검은 리본을 두르고 찬연히 걸려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리본이 자꾸만 펄럭이는 탓인지 두 분이 다 살아 있는 듯한 모습으로 뭔가 이야기 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라고 묘사하였다. 森下三男(1942) 『陸軍特別志願兵』 立川文明堂, p.88. 失橋水明(1939.11) 『徹底した情神鍛錬道場志願兵訓練所を觀る(下)』 『総動員』 제1권 제6호. 교 육출판기회실편(1988) 『교과서와 친일문학』 동녘, p.199-200. 모탄日本社(1940) 『志願兵訓練所訪問記』 『モタン日本(朝鮮版)』, p.162-163.

81) 大野テル子(1940.7) 『君国多事の 秋에 志願兵(志望者)十万突破, 志願兵 母姉에 送하는 書』 『삼천리』 제12권 제7호 1940.7.

82) 陸軍省(1939.9.26) 『告別式に弔電供与の件』 JAC-AR(ref.C04014800900).

83) 1944년에 이르러 이인석상등병의 전사는 더욱 감격적인 내용으로 재구성되었다. 朝鮮總督府情報課(1944) 『新しき朝鮮』, p.48-50.

84) 『毎日申報』 1939.7.8, 3면.

85) 『毎日申報』 1939.7.11, 3면.

무관하게 ‘묻지마 추모열’에 휩싸였다. 이러한 ‘묻지마 추모열’ 혹은 ‘이상한 추모열’의 이면에는 조선인 문화엘리트의 다양한 문예협력이 결정적으로 역할하였다. 이인석상등병을 소재로 하는 문예장르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헌사와 헌시이다. 당대 조선 문단의 중진이었던 춘원 이광수는 이인석상등병의 전사와 관련해서 “전사 통보는 반도 2,300만 민중의 가슴을 감격으로 용소음치게 하였다. 이상등병의 전사 통보 이후 수일이 경과했지만, 아직 우리들의 무엇라 말해야 좋을까 적절한 말을 찾을 수가 없다. 그것은 이것이 최초의 경험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충격이며, 감격이기 때문일 것이다”<sup>87)</sup>는 소감을 게재하였다.<sup>88)</sup> 또한, 1941년 3월 조선문인협회 간사 송아주요한(松村紘一)은 잡지 ‘신시대’에 “첫피-지원병 이인석에게 줌-”이라는 헌시를 게재하였다.<sup>89)</sup> 주요한의 헌시는 이인석상등병 전사를 앞세워 조선인 청년들의 민족적 자존심과 애국심을 자극하였다.<sup>90)</sup> 또한, 헌시는 문학작품으로도 크게 화제를 모았다. 여류작가 모운숙은 주요한의 ‘첫피’를 1941년 최고의 문학작품이라 극찬하였다. 헌시 첫피의 일절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간다, 만세를 부르고/천황폐하 만세를 목껏 부르고/대륙의 풀밭에 피를 뿌리고/너보다 앞서서 나는 간다. 피는 땀에서 누런 흙 위에 검게 엉기인다. 형아! 아우야! 이 피는 너들의 피다. 2천 3백만 너들의 피가 내 몸을 통해서 흐르는 것이다. 역사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뿌려지는 피다. 반도의 무리가 님께 바친 처음의 피다.(중략) 형아 아우야 나는 간다. 너보다 앞서서 만세를 부르고 대륙의 풀밭에 피를 뿌리고 나는 간다. 나는 내 피에 고개를 숙이어 절한다. 그것은 너들의 피기 까닭에, 장차 내뉘를 따라올 백과 천과 만의 너들의 뜨거운 피기 때문에. 아아 간다. 나는 너보다 앞서서 한말자국 앞서서 만세, 만세.

둘째, 논픽션 소설 ‘이인석상등병’이다. 같은 작품은 경남 거창 출생과 진주중학 출신 박영량(본명은 이윤기)이 논픽션 형식으로 집필한 영웅전이다. 박영량은 육군특별지원병 제1기생으로 1939년 6월 제20사단 소속으로 화북전선 참전하였다.<sup>91)</sup> 박영량

86) 『國民新報』, 1939.7.16, 3면.

87) 森下三男(1942) 『陸軍特別志願兵』立川文明堂, p.4.

88)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1939.11) 『總動員』 제1권 제6호.

89) 교육출판기획실편(1988) 『교과서와 친일문학』 동녘.

90) 綠旗聯盟(1939) 『朝鮮思想界概觀』, p.68.

91) 김윤식(2012) 『한일 학병 세대의 빛과 어둠』 소명출판, p.12.

의 작가활동과 이력은 불분명하지만, 1943년 ‘이인석상등병’이 문단의 데뷔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인석상등병’은 이인석의 유년기 이래 순수하고 성실한 모범청년으로 자라는 성장기와 학교생활, 결혼과 부부관계, 지원병 지원과 훈련소 생활, 입영과 전사의 일대기를 자신의 참전 경험을 사려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같은 작품은 징병제 실시를 앞두고 이인석상등병을 조명해서 조선인 사회의 애국심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전형적인 프로파간다 소설이었다. 당시 조선총독부 경무과장 야기 노부오(八木信雄)는 서문에서 ‘지원병 출신자 이인석상등병이야말로 장엄한 일본의 도를 달성한 최초의 한사람이며, 반도의 늘어나는 일본혼의 표현’이라 격찬하였다. 1943년 7월 충북 옥천군은 이인석상등병의 일대기가 징병제 실시를 앞두고 결전사상을 고취시킨다는 취지에서 소설의 독서 장려운동을 전개하였다.<sup>92)</sup>

셋째, 영화 제작이다. 이인석상등병을 주인공으로 하는 최초의 영화는 1941년 조선, 일본, 만주에서 동시에 개봉한 ‘그대와 나(僕と君)’였다.<sup>93)</sup> 영화 제작은 조선군보도부와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조선인 영화감독 허영이 메가폰을 잡았다. 배역진은 조선인 배우 문예봉, 서월영, 김신재를 비롯해서 만영(滿映)의 간판스타 이향란 그리고 다수의 일본인 배우와 성악가 나가다 겐지로(永田絃次郎) 등이었다. 영화는 부여 낙화암의 삼천궁녀의 슬픈 이야기와 창가를 삽입해서 국책성과 오락성을 겸비하였다. 영화의 줄거리는 육군병지원자훈련소 훈련생도 가네꼬 에이조(金子英助)라는 조선 청년과 아사노 미쓰키(淺野美津技)라는 일본인 처녀가 혼담이 오가는 와중에서 아사노가 천황을 위해 전선으로 나가는 연인 영조를 격려하고 송별하는 스토리이다. 1941년 미나미총독은 영화평과 관련해서 “황국정신을 양양케 함은 물론 내외인으로 하여금 내선일체의 실상을 인식케 함에 크게 기여할 것”<sup>94)</sup>이라 격찬하였다. 같은 영화는 일본 문부성과 조선총독부 추천 영화로 일본 제국권 전역의 학교와 영화관에서 상영되었다.<sup>95)</sup> 영화의 성공과 뜨거운 반향은 이후 지원병 영화 혹은 밀리터리 시네마가 조선 영화계의 새로운 장르로 등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같은 영화는 이인석상등병에 대한 이상한 추모열을 부채질하고,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열을 자극하는 감성동원의 주요 기제가 되었다.<sup>96)</sup>

92) 『毎日申報』 1944.7.31, 3면.

93) 여기서 ‘그대’는 일본인을 총칭하였고, ‘나’는 조선인의 총칭으로 그대와 나는 굳게 손을 잡고 대동아 공영권의 초석이 되자는 결의를 의미하였다. 김려실(2006) 『투사하는 제국 투영하는 식민지』 삼인, p.276.

94) 『毎日申報』 1941.11.15.

95) 계제서, 김려실(2006). 이덕기(2010) 「제국의 호명, 빛나간 응답」 『한국극예술연구』 제3집. 이영재(2008) 『제국 일본의 조선영화』 현실문화. 함충범(2008) 『일제말기 한국영화사』 국학자료원.

넷째, 가요와 창극이다. 1940년 이인석상등병의 영웅적 전사를 칭송하는 조선어 나니와부시(浪花節)로 각색되어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sup>97)</sup> 각지를 순회하는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을 권유하는 강연회에서는 이인석상등병의 영웅적 일대기를 지연극(紙演劇)으로 각색해서 상영하였다.<sup>98)</sup> 1940년 7월에는 라디오 방송으로 ‘아! 이인석상등병’이 방송되었고, 조선인 레코드사였던 오케에서는 이서구 원작 및 각색으로 ‘장렬 이인석상등병’이라는 제하의 음반 레코드로 발매되었다. 또한, 1941년 11월 영화 ‘그내와 나’가 개봉되면서 주제가도 크게 유행하였다. 주제는 오케레코드에서 남인수와 장세정으로 노래로, 일본에서는 킹레코드에서 나가다 겐지로의 노래로 각각 ‘기쁨의 노래’와 ‘지원병 행진곡’으로 발매되었다.<sup>99)</sup> 또한, 조명암 작사, 김해송 작곡의 영화 삽입곡 ‘낙화삼천’이 별도의 레코드로 발매되었다. 가사는 주인공 가네코와 아사노가 백제의 고도 부여를 찾아서 백마강에서 뱃놀이를 하는 장면에서 사공으로 분장한 김정구가 나룻배의 노를 저으며 노래를 불렀다.<sup>100)</sup> 가요와 창극은 이인석상등병의 영웅적 전사와 신화 만들기에 크게 기여하였다.

#### 4.3 이인석상등병과 죽음의 정치성

이인석은 1939년 6월 전사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소농 가계의 8남매 장남으로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인석은 육군특별지원병의 투신과 죽음을 통해서 조선인을 대표하는 군국영웅으로 재탄생하였다. 이인석상등병의 일대기는 영화를 비롯한 시와 소설 등 문학작품으로도 각색되었다. 조선과 일본의 매스미디어는 ‘피로써 국가에 봉납한’ 이인석상등병의 전사와 추모열을 앞다투어 보도하였다. 당시 매일신보 등 관제 언론은 물론이고 동아일보 등 조선인 언론도 육군특별지원병 최초의 전사자 이인석

96) 『京城日報』 1941.7.6, 3면.

97) 나니와부시(浪花節)의 제목은 ‘오호 이인석상등병’이었다. 동아일보는 “반도지원병의 장렬한 전공! 이야말로 세기의 감격이었습니다. 이인석상등병의 충혼은 이제 구단의 높은 자리에 호국의 영령이 되어 그 이름은 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등병의 지원병이 되기까지의 지성을 다한 행적과 일대해서 출정하기까지 사내답고 황국신민다운 일화를 ‘나니와부시’로 각색한 것입니다. 듣는 이의 가슴을 뜨드려 감격의 눈물이 없이는 듣지 못할 대결작입니다”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東亞日報』 1940.6.11, 3면.

98) 『東亞日報』 1939.11.2, 3면.

99) 박찬호지음, 안동립옮김(1992) 『한국 가요사』 현암사, p.492.

100) 김정구가 불러서 히트했던 ‘낙화삼천’의 1절 가사는 “반월성 넘어 사비수 보니, 흐르는 붉은 돛대 낙화암을 감도네, 옛 꿈은 바람결에 살랑거리고, 고란사 짙은 날에 물새만 운다. (후렴) 물어보자 물어봐 삼천궁녀 간곳 어디냐, 물어보자 낙화삼천 간 곳이 어디냐”였다. 전개서, 박찬호지음, 안동립옮김(1992), p.493.



상등병의 대중적 상징성에 고려해서 경쟁적 보도와 선전활동에 주력하였다. 다음은 이인석상등병의 전사에 따른 조선인 사회의 반향 혹은 정치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첫째, 영웅 만들기이다. 1940년 당시 조선지원병후원회(회장 윤치호)와 충북 옥천군 표충비건립기성회(회장 정구평)는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의 지원을 배경으로 이인석상등병의 표충비 건립을 추진하였다.<sup>101)</sup> 표충비 건립은 “반도가 낡은 무인 최고의 명예를 반도동포는 감분(感奮)의 지표로 하여 애국지성에 끓고 있는데, 이제 이인석상등병의 유열(遺烈)을 영구히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향리 충북 옥천군에서는 표충비 건립의 의논이 일어나서 기성회를 결성하고 정구평씨가 회장이 되어 최병협(新岡 繁藏) 군수와 함께 강호에 호소”<sup>102)</sup>하면서부터였다. 또한, 표충비 건립과 관련해서 당시 군사원호단체였던 애국부인회 조선본부 회장 오오노 테루코(大野 정무총감의 부인)는 “리인석 상등병은 정국의 신으로 영구히 살고 있다. 리인석 상등병의 향리에 표충비를 건립하기로 되었다니 진실로 좋은 일이다. 표충비를 귀감으로 더욱더 충의의 관념을 함양하기를 기원한다”<sup>103)</sup>는 소감을 밝혔다. 묘역의 성역화와 표충비 건립은 현재 그 이유가 불분명하지만, 단지 석재를 모으는 수준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말았다.<sup>104)</sup>

둘째, 민족적 정체성의 환기이다. 육군특별지원병제 옹호론자였던 좌옹 윤치호는 1938년 4월 “제도 실시를 동반해서 다소 우려스러운 것은 과거 몇백년 동안 군사교육이라는 것이 없었고, 그래서 민중은 병대가 되는 것을 오히려 천시해 왔기 때문에 군사훈련 혹은 군규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하다. 과연 이들이 총독부와 군 당국이 만족할 수 있는 성적을 올릴지 의문”<sup>105)</sup>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윤치호의 우려는 육군특별지원병들이 과연 이조 500년에 걸친 문약성을 혁파하고 상무정신을 회복한 강병으로 탈바꿈할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첫째로 응모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설사 응모자가 있기로서니 군인으로 합당하겠느냐. 또 평시라면 몰라도 전시에 과연 일본군인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시하였다. 그러나 이인석을 필두로 선배 지원병들의 우수한 성적은 이러한 의문을 장쾌하게 분쇄”<sup>106)</sup>하고 말았다. 춘원

101) 『三千里』 제12권 제7호, 1940.7.1.

102) 「君国多事の 秋에 志願兵(志望者)十萬突破, 志願兵 母姉에 送하는 書」 『삼천리』 제12권 제7호.

103) 『三千里』 제12권 제7호, 1940.7.1.

104) 御手洗辰雄編(1942) 『南次郎』 京城日報社, p.237.

105) 尹致昊(1938.4.1) 「教育令改正志願兵制度實施に際しての感想」 『朝鮮』 제275호.

이광수는 이인석상등병의 전사를 계기로 그 동안 잊혀져왔던 1,200년전 황산벌 전투에서 조국 신라를 위해 장렬히 전사한 화랑 관창의 활약상 혹은 임진왜란에서 활약한 성웅 이순신의 충정을 소개하며, 조선인 사회의 멸사봉공과 상무정신의 전통을 환기하였다. 이인석상등병의 전사는 조선인 사회의 민족적 정체성과 자존심을 환기하는 결정적인 기제가 되었다.

셋째, 전시동원의 프로간다이다. 1951년 조선군잔무정리부는 이인석상등병의 전사가 “조선인 각층에 미친 감동이 극히 심대하였고, 널리 라디오, 신문, 잡지에 의해 선전되어 조선인 각층의 애국심을 크게 분기시켰다”<sup>107)</sup>고 지적하였다. 또한, 1941년 『특고월보』에 따르면 “진충보국의 성의를 다하고 호국의 신이 된 선배 동포의 혁혁한 무공에 자극되어 혈서지원이 다수에 달하였다”<sup>108)</sup>고 전한다. 실제로, 1939년 이인석상등병 전사 이듬해인 1940년 육군특별지원병 모집 정원은 600명에서 3,000명으로 증원되었고, 지원율도 1939년 20.6배, 1940년 28.1배, 1941년 48.2배를 기록하였다.<sup>109)</sup> 또한, 1940년부터 육군특별지원병의 배치부대도 조선군만이 아닌 관동군과 일본 관내 부대로까지 확대되게 되었다.<sup>110)</sup> 1939년 6월 당시 육군특별지원병의 증원과 배치부대의 확대 요청에도 소극적이었던 식민권력이 이인석상등병의 전사와 이상한 추모열을 배경으로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화하게 되었다. 또한, 1942년 “이번 지나사변으로…내지인이 10만 6,000명이 전몰할 때 그 가운데 조선인이 3만 명은 포함되어야 진실이고 공평”<sup>111)</sup>하다는 이른바 혈세의 윤리학이 등장하면서 조선인 사회의 전시협력을 자극하였다. 이인석상등병의 영웅적 전사의 홍보자료는 각급 학교와 청년훈련소에 배포되면서 내선일체의 구현 혹은 순국봉공의 표본으로 국민 만들기의 주요 교재가 되었다.<sup>112)</sup> 결국, 이인석상등병의 전사와 영웅적 서사화는 1943년 10월 학도

106) 『毎日申報』 1940.3.2, 3면.

107) 朝鮮軍殘務整理部(1951) 『朝鮮人志願兵徵兵の梗概』, pp.165.

108) 內務省(1941.12) 『特高月報』.

109) 法制局(1943.5.25) 「朝鮮總督府陸軍兵志願者訓練所管制中改正ノ件」 JAC-AR(ref.A03010084300).

110) 1939년 4월 14일 조선호텔에서 3대 시국문제였던 징병, 의무교육, 총동원 문제에 대한 군, 관, 민有志의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당시, 삼천리사 주필 김동환은 朝鮮總督府學務局長과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훈련소 소장을 겸했던 시오바라에게 (1)지원병제 모집 인원을 연간 400명이 아닌 7,000명으로 증원해 줄 것, (2)지원병의 부대 배속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줄 것, (3)단시일내에 조선에서 징병제 실시를 요청하였다. 김동환의 문의에 대해 시오바라 소장은 (1)과 (2)는 군부의 결정사항이라서 전부 답변할 수 없지만, (1)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증원할 생각이라 답변하였다. 「徵兵·義務教育·總動員 問題로 軍部와 總督府 当局에 民間有志가 問議하는 會」 『삼천리』 제11권 제7호, 1939.6.

111) 이광수(1942.3) 「この秋こそ奉公の機會」 『大東亞』.

112) 海田要(1939) 「志願兵制度の現狀と将来への展望」 『今日の朝鮮問題講座』 綠旗聯盟, 23면.

지원병제와 1944년 4월 징병제 실시와 관련한 조선인의 자발적 동원과 군사동원의 풀뿌리성을 규정하는 정치성을 발휘하였다.

## 5. 맺음말

1939년 이인석상등병의 전사는 조선인 2,300만에 앞서서 민족혼을 탈색하고 황국혼으로 충만한 조선인 군국영웅의 화신이라는 ‘특별한 죽음’으로 작위·미화되었다.<sup>113)</sup> 영광의 극치, 파격의 은진, 천추에 남을 수훈을이라는 이인석상등병의 일대기는 영화로도 극화되었고, 다양한 문예장르와 문예작품으로 각색되었다. 그러나 유가족의 입장에서 이인석상등병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심각한 감정 왜곡과 함께 망각의 자유마저 박탈당하는 불편한 죽음이었다. 결혼 5년만에 상처한 미망인 유서분 여사(당시 23세)는 어린 딸 이정숙(당시 2세)과 함께 힘겨운 여생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sup>114)</sup> 이하에서는 앞서 머리말과 관련해서 이인석상등병의 전사와 죽음의 정치성이 갖는 연구사적 의의를 지적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전사의 허상과 실상이다. 그 동안 이인석상등병은 중일전쟁에 참전해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전사한 조선인 최초의 황군 병사로 널리 알려져 왔다. 장렬무비의 명예 전사로도 알려진 이인석상등병은 3차례의 고별식, 금치훈장 수상, 야스쿠니 신사 합사 등 파격적인 서훈·현창과 함께 조선인의 호국 명령으로 추모되었다. 또한, 이인석상등병의 전사는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조선인 사회의 이상한 추모열을 자극했고, 시, 소설, 영화 등 다양한 문예형식으로 반도인의 충혼, 진중의 꽃, 홍아의 초석 등 제국주의 레토릭으로 넘쳐나는 ‘특별한 죽음’으로도 미화되었다. 만 25년에 걸쳐 8남매의 장남으로 장삼이사의 삶을 살았던 이인석상등병은 일제의 침략전쟁에서 전사하면서 역사 전면에 등장하였다. 그러나 제20사단 보병 제79연대 중군 보고와 같이 이인석상등병의 전사는 결코 영웅적인 것도 아니었고, 일본군의 상무정신과도 크게 괴리되었다. 더욱이, 이인석상등병의 전사는 심각한 중상과 혼수상태에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전사할 수 있는 정황도 아니었다. 1939년 11월 이인석 상병이 소속하는 제20사단 전사자는 총 759명을 기록하였다.<sup>115)</sup> 이인석상등병의 전사는 다른 일본

113) 朝鮮軍參謀部(1940.3.14) 「鮮內思想狀況に関する件(朝鮮軍)」 JAC-AR(ref.C01004782600).

114) 『옥천신문』 2003.9.27(<http://www.okinews.com>).

115) 歩兵第七十九聯隊史編集委員会編(1984) 『歩兵第七十九聯隊史:朝第二〇五四部隊・朝鮮第二十三

인 전사자와 구별되는 특별한 죽음도 아니었다.<sup>116)</sup> 그럼에도 이인석상등병의 전사가 특별한 죽음으로 미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육군특별지원병 제1호 전사자였기 때문이었다. 이인석상등병의 전사는 잘 각색된 한편의 시나리오 그 다름이 아니었다.

둘째, 죽음의 정치성이다. 식민권력은 이인석상등병을 ‘장렬무비의 명예전사’ 혹은 ‘진충보국의 화신’으로 날조·미화해서 황국훈의 정화 혹은 황민화 이데올로기의 상징으로 표상하였다. 이는 식민권력이 이인석상등병의 전사를 활용해서 조선인의 민족적 정체성과 자존심을 자극하고 내선일체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황민화 이데올로기의 기제로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한편, 조선인 정치세력은 육군특별지원병제를 징병제 실시 및 참정권 획득과 연계해서 최종적으로 민족자치 실현의 정치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그래서 조선인 정치세력은 이인석상등병의 전사를 조선인 최초의 혈세 납세자임을 내세우며, 식민권력에 대한 정치적 교섭력 확대·강화하는 호재로 활용하였다<sup>117)</sup> 또한, 그 때문에 조선인 사회는 이인석상등병의 이상한 추모열에 휩싸였고, 영웅적 서사화에도 열광하였다. 이인석상등병의 전사는 서로 다른 정치적 목적 함수를 욕망하는 식민권력과 조선인 정치세력이 작위·공모한 ‘정치적 죽음’이었다. 그래서 이인석상등병의 전사는 사실을 넘어 전설이 되고, 신화가 될 수 있었다. 이인석상등병의 전사는 동화주의 식민통치 이데올로기의 제도적 완성을 추동하는 죽음의 정치성을 발휘하였다.

셋째, 자발적 동원이다. 내선일체화 정책으로 육군특별지원병제에 주목한 최유리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이 식민지 지배정책의 질적 전환을 초래하는 일대 전환점을 간주해서 제도 시행이 (1)병력부족의 해소와 (2)황민화 의식의 주입으로 간주하였다. 육군특별지원병제의 성과는 조선군사령부의 당초 예상과 달리 크게 성공적이었지만, 이는 식민권력의 광범위하고 철저한 강제동원의 결과로 단정하였다.<sup>118)</sup> 그러나 최유리의 주장과 같이 식민지 지배라는 구조적 강제성을 곧바로 지원자 개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현상적 강제성으로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인

部隊』, p.204.

116) 실제로, 1932년 2월 23일 만주사변기 관동군 헌병대 소속 채달목 1등 헌병보가 전사하였고, 그래서 1934년 8월 22일 일본정부는 수훈을 공7급 훈8급의 금치훈장을 서훈하였다. 『朝日新聞』 1940.2.10, 3면.

117) 이광수는 1940년 3월 6일 ‘지원병훈련소를 보고(1)’라는 매일신보 칼럼에서 ‘청결관념과 질서관념은 조선 청년에게 가장 결여한 것이요, 또 가장 중대한 결함이다. 따라서 훈련소에서는 가장 주력해서 훈련하는 과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무교육, 징병제 실시, 창씨개명이 내선인체의 완성 혹은 내선차별 철폐의 완성이라며, 오직 남은 것은 조선인의 충성과 노력 여하라고 강조하였다. 『每日申報』 1940.3.6, 3면.

118) 전개서, 최유리(1997).

석상등병의 전사에 대한 식민권력의 대응과 조선인 사회의 이상한 추모열은 육군특별지원병제가 최유리의 주장과 달리 현상적 강제성을 결여한 제도적 특질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적 강제성을 동반하는 징병제와 같이 육군특별지원병제가 구조와 현상의 강제성을 동반했다면, 굳이 이인석상등병의 전사를 ‘특별한 죽음’으로 날조·각색하는 사회적 비용과 제국주의 레토릭으로 넘쳐나는 프로파간다도 불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sup>119)</sup> 육군특별지원병제는 문자 그대로 지원자 개개인의 자유의지와 자발적 동원을 특징으로 하였다. 그래서 식민권력은 이인석상등병의 전사에 정치성을 부여하고, 황국신민화의 상징으로 표상하였다. 결국, 육군특별지원병은 지원과정에서 식민권력부터 다양한 형태의 종용 혹은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원 그 자체는 지원자 개개인의 적나라한 욕망을 반영하는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였다. 식민지기 조선인은 결코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식민권력에 내맡기는 무기력하고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 【참고문헌】

- 김승구(2009) 「일제 강점 말기 지원병제와 김동환의 시국 대응」 『현대문학의 연구』 제39집.  
 김려실(2006) 『투사하는 제국 투영하는 식민지』 삼인.  
 공임순(2010) 「전쟁 미담과 용사」 『상허학보』 제30집.  
 강종훈외(2011) 「위대한 황국 청년의 죽음」 『(미래를 여는) 한국 역사(5)』 역사문제연구소.  
 이덕기(2010) 「제국의 호명, 빛나간 응답」 『한국극예술연구』 제3집.  
 이영훈(2007) 『대한민국 이야기』 기파랑.  
 이영재(2008) 『제국 일본의 조선영화』 현실문화.  
 미야타 세쓰코, 정재정(2002) 『식민통치의 허상과 실상』 혜안.  
 박수현(2011) 「일제말 과시즘기(1937~1945) 『매일신보』의 대중선동 양상과 논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69집.  
 박지향(2010) 『윤치호의 협력일기』 이숲.  
 박찬호지음, 안동림옮김(1992) 『한국 가요사』 현암사.  
 조형래(2009) 「황군을 지원하는 영화 그리고 문학」 『비평문학』 제34집.  
 장용경(2005) 「‘조선인’과 ‘국민’의 간극」 『역사문제연구』 제15호.  
 최유리(1997)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119) 이인석상등병의 사례는 식민지기 친일협력이 개인적으로 부귀영달을 욕망하는 소수 조선인 지도층 인사의 일탈 혹은 전유물만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종래 친일 협력자에 대한 비판과 타자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촉구한다. 바꾸어 말하면, 식민지 말기 조선인의 대일협력이 이인석상등병과 같은 장삼이사(張三李四)를 포함하는 대중적 정치현상 혹은 친일협력의 풀뿌리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식민지기 조선인의 친일은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시대와 사회의 피구속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 표영수(2014) 「일제강점기 육군특별지원병제도와 조선인 강제동원」 『민족운동사학』 제79호.  
하상복(2014) 『죽은자의 정치학』 모티브북.  
함충범(2008) 『일제말기 한국영화사』 국학자료원.  
후지이 다다토시지, 이종구 옮김(2008) 『갓포기와 몸뻐, 전쟁』 일조각.  
宮田節子(1985)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 未来社.  
宮田節子(1991) 「皇民化政策の構造」 『朝鮮史研究会論文集』 第29号.  
樋口雄一(2001) 『戦時下朝鮮の民衆と徴兵』 総和社.  
ブランドン·パーマー, 塩谷紘(2014) 『日本統治下朝鮮の戦時動員』 草思社.  
駆込 武(1996) 『植民地帝国日本の文化統合』 岩波書店.  
鈴木敬夫(1989) 『朝鮮植民地統治法の研究』 北海道大学図書刊行会.  
古川宣子(1993)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初等教育」 『日本史研究』 第370号.  
洪宗郁(2011) 『戦時期朝鮮の転向者たち:帝国/植民地の統合と亀裂』 有志舎  
山室建徳(2007) 『軍神』 中央公論社.  
森村敏己(2006) 『視覚表像と集合的記憶』 旬報社.  
裴淵弘(2009) 『朝鮮人特攻隊:「日本人」として死んだ英霊たち』 新潮社.  
山口隆(2010) 『他者の特攻—朝鮮人特攻兵の記憶·言説·実像』 社会評論社.  
一ノ瀬俊也(2009) 『皇軍兵士の日常生活』 講談社.  
小熊英二(1998) 「朝鮮生まれの日本人—朝鮮人衆議院議員·朴春琴」 『コリアン·マイノリティ研究』 제1권.  
松田利彦(1995) 『戦前期の在日朝鮮人と参政権』 明石書店.  
吉見義明(1987) 『草の根のファシズム:日本民衆の戦争体験』 東京大学出版会.

논문 투고 일자 : 2018. 01. 10. 논문 심사 일자 : 2018. 0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8. 02. 05.
--

---

 < 要 旨 >
 

---

## 李仁錫上等兵の戦死と「死の政治性」

鄭安基

本稿は、韓国近代史において戸惑いを感じさせるジレンマであり、ミステリーとも知られている陸軍特別志願兵制を、植民権力と被植民社会との政治的な依存関係や相互作用を分析する有効な歴史的プリズムであると捉え直し、陸軍特別志願兵最初の戦死者である李仁錫上等兵の死を植民地政治史文脈から再構成・再解析を試みる。1940年代「半島人の忠魂」、「靖国の軍神」、「殉国美談の象徴」であると知られている李仁錫上等兵は、陸軍特別志願兵の第1期生として1939年6月日中戦争に参戦し、「天皇陛下万歳」を叫びながら戦死した朝鮮人最初の兵士であるとも知られている。しかし、李仁錫上等兵の戦死は、決して壯烈無比の戦死や英雄的戦死でもなかったの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互いに異なる政治的目的を目指した植民地権力と朝鮮人政治勢力は、民族魂を脱色した朝鮮人の軍国英雄であると叙事化し、美化したのである。そこで、忠南沃川の小農出身であった李仁錫上等兵は、1940年代内鮮一体の制度的な完成(徴兵制, 参政権, 義務教育)に働き掛けるプロパガンダの象徴あるいは朝鮮人社会の民族的プライドを刺激する皇民化イデオロギの象徴ともなったのである。

## The Death of Corporal Lee In-Seok and the Politics of Death

Joung, An-Ki

The army special volunteer system of colonial Korea has been characterized as an “embarrassing dilemma and mystery” in studies of modern Korean history. This study attempts to reconstruct and reinterpret the death of Corporal Lee In-Seok—the first army special volunteer soldier killed in action—in the context of colonial political history. To do so, it regards the volunteer system as a historical prism for analyzing the political dependence and interactions between colonial authorities and colonized communities. In the 1940s, Corporal Lee was hailed not only as a loyal spirit of the Korean people and a war hero of their troubled nation but also as a symbol of honorable, patriotic sacrifice. He was the first Korean soldier to be killed in battle during the Sino-Japanese War, in which he was engaged under the army special volunteer system. He is known to have died in June 1939, with a shout of “Hurrah for His Majesty the Emperor.” Contrary to popular belief, however, the death of Corporal Lee was neither so glorious nor heroic as to demonstrate his loyalty to the imperial spirit of Japan. Colonial authorities and Korean political forces that were in pursuit of different political ends hailed and idealized him as a Korean war hero fully motivated by imperial Japanese spirit, rather than by Korean national spirit. As a result, Corporal Lee In-Seok, who had lived his life as a humble individual from a remote mountain village in Okcheon, Chungnam Province, was reborn through the politics of death as a symbol for propaganda driving the institutional completion of *naeseon ilche*—or the “Korea and Japan are one entity” policy—in the 1940s (including conscription, political rights and compulsory education) or as an icon of the *Japanization* ideology that stimulated the national pride of Korean society.